

보도일시 (인터넷,지면) 2023. 12. 21.(목) 09:00 배포 2023. 12. 20.(수)

[2023년 해양수산부 정책돋보기]

김, 수산식품 최초로 수출 1조 원(7.7억 불) 달성

- 마른김부터 조미김, 스낵김까지 전 세계 124개국에 수출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대한민국 대표 수산식품인 김 수출이 1조 원(7.7억 불)을 달성했다고 밝혔다. 이는 수산식품 수출 역사상 단일 품목으로는 최고의 실적이다.

올 한해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, 김 수출이 역대 최대 성과로 수출 반등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.

김 생산자와 가공·수출기업이 기술 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여 미국, 중국, 일본 등 전통적인 수출시장뿐만 아니라 중동, 남미와 같은 신규 시장을 개척한 결과, 김 수출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8% 수준으로 증가하였고, 수출 국가도 2010년 64개국에서 2023년 124개국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.

해양수산부는 우리 김을 세계인들의 입맛에 맞는 기호식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김 산업계의 국제인증 취득, 수출바우처 제공, 해외 무역상담회 참여 등을 매년 확대 지원해 나가고 있다. 아울러, 경쟁력 있는 김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올해 3월 '김산업 진흥구역'* 3개소(신안군, 해남군, 서천군)를 최초로 지정하고, 9월에는 법정계획인 '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(2023년~2027년)**'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.

* 김산업 진흥구역 : 김 생산·양식·가공·제조·유통·수출·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

** 제1차 김산업진흥 기본계획 4대 추진전략 : ▲고품질 원료 공급, ▲고부가가치 창출, ▲미래지속 성장형 산업, ▲국제적 수요 창출

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앞으로도 브랜드 마케팅과 신제품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김이 해외 김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할 것”이라며, “이와 함께 김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하여 2027년까지 김 수출액 10억 불(1.3조 원)을 달성할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수산정책관	책임자	과 장	강희정 (044-200-5480)
	수출가공진흥과	담당자	사무관	김영민 (044-200-5488)

붙임 1

주요 수출 김 제품 사진 (순서는 순위와 관계없음)

<p>신안천사김</p>		
	<p>미국 Costco 납품 조미김 (Kirkland Organic Roasted Seaweed)</p>	<p>유기농 김부각 칩 (Organic Seaweed Bugak Chips)</p>
<p>성경식품</p>		
	<p>Gimme 김스낵(씨솔트맛)</p>	<p>Gimme 김스낵(테리야키맛)</p>
<p>만전식품</p>		
	<p>Laverland Crunch(오리지널맛김)</p>	<p>Laverland Crunch(미니언즈 김시리즈)</p>
<p>동원F&B</p>		
	<p>양반 조미김</p>	<p>양반 김부각</p>
<p>광천김</p>		
	<p>광천김 파래김</p>	<p>유기농 광천김</p>

